

#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15호>

2002년 10월 9일(수)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0·2 전국 대학생 총궐기'에 참가 하셨나요?  
참가하셨던 이유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종묘공원부터 명동까지, 꼭~ 집회에 동행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신의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변화가 실로 엄청납니다.  
독적 것 같아, 어려운 회의까지. 이 실험은 성공했지 궁금합니다.



이번호는 명수당의 짓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4월(급) '적표혁명'을 소지한 힐로의 구속된 고려대 모양에 대한 관심보기 열릴 때 모 표는 '여유 갖고 다양한 사고 해요'라고 충고를 건넸더데... 이에 크로나클이 혼잣말하니,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복지 대체 조국의 아버도, 조금 더 다양한 시고도 응원하지 않을까?'

## 용인 총학생회장 윤상필군 연행돼

현재 경기보수대에 감금... 조사과정 중 폭행 파문



용인대학교를 떠났다가 다음날인 1일(화) 낮 12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의 연행사유는 윤군이 현재 아직 단체로 규정해 있는 한총련의 대의원인 것과 지난 6·15 행사에서 화려한 사용 등이며 경찰은 윤군을 관할부처인 용인경찰서로 연행했다가 곧 수색에 위치한 경기보안수사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은상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가 학생들 던졌잖아'라며 대답을 강요하고 머리와 정면구, 팔등구를 풀어 손을 채우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군은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은상필군의 연행소식을 접해온 유행언론에서 총학생회 간부들로부터 40여 명의 학생들이 경기보안수사대로 환방문장을 깃쳤다. 동행한 학생지원처 직원 이승규, 김문배씨와 직간접 유행언론을 보충총학생회장 황중환

(인문·언어 94, 제작)군이 대표로 윤군을 면회했으며 윤군은 면회에서 일기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길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군이 연행된 후 유행언론은 윤군에 직접 두 표에 밝힌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범위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범위로 산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윤군의 식방을 요구했다. 또한 윤군이 의장으로 있는 경기보안총연과 산연의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상필 총학생회장의 연행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행언론과 함께 총학생회의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산전국장 황소리(인문·철학 97)은 '총학생회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앙본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지난 5일(토) 서울배움터 소운동점에서는 유행언론이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미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계풍을 즐기는 모습.

임창모 기자

## 총학, 아직 늦지 않았어!

서울, 용인 양 배움터 총학생회가 들어선 지 1년 좀 못 미친다. 이번 주제기획은 살집 임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양배움터 총학생회가 지난 당시 내세웠던 광악 실험장 도에 대해 짐작한다. 양배움터 학생들은 한 걸음이 총학생회의 '등록금 책정 노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등록금을 환불받게 된 점이 그 이유가 될 티자신 유행언론이 총학생회의 지역적, 도입 초기에 문제로 꾸려온 종합학제적 대안학교와 교무행정의 분리 독립 등 총학생회 단독으로 결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

양 배움터 모두 앞으로 남은 일기장 좀 더 주도권한을 계획으로 공약을 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교문·도서관 24시간 개방, 홍성전기 대용, 위의 언급했듯 등록금 부정 등 비교적 큰 사안에 대한 광악이 잘 지었다. 반면 강남 제2도서관 설치, 교환 학생 제도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등 사전준비와 계획이 짐작하게 이뤄져야 할 공약들은 아직까지 자거지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자체 조사결과 공약을 저지른 것이 불가능한 것

으로 밝혔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용인배움터 22대 학생회는 지난 22대 총학생회가 학교과 학과의 '2001년 학자요구 합의서'의 32기장 학과의 중 대부분을 지켰고 등록금 투정을 삼가면서는 것

▶주제기획 4.5면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작은 성과였다.

반면, 지역적 재단선언을 위한 대학기구 건설, 지역적 학생활동회의 강화 강화, 산연과 한총연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미 군은 일부의 반성도 없이 반겼다.

종묘공원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이들은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지 3개월이 지난지난달, 미 군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반겼다.

사건과 서정원 전 의원 희생사건 등 또 다른 사인과 폭력에 저지르고 있다'며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주제로 가미바이론 차별, 미 대령의 사과, 주한미군의 완전경수를 위해 끌 까지 투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대학 후 대회에 참여 이어 4.5면에서 진행되는 중 지역회를 통해 4호선 이촌역으로 이동, 미군기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생 단체들은 오는 11월 3일(화) 다시 한 번 총궐기 를 열 계획이다.

이번 총궐기에서 우리대학은 서울·용인·배움터 각각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양배움터 총학생회 총궐기 전 회의에서 윤군이 참석해 윤군을 칭찬해 놓았다. 그러나 윤군이 의장으로 있는 경기보안총연과 산연의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상필 총학생회장의 연행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행언론과 함께 총학생회의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산전국장 황소리(인문·철학 97)은 '총학생회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앙본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2일(수) 전국 대학생 총궐기 열려

지난 2일(수)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는 한총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화협, 학생동반연대 등 12개 단체들이 소속 4000여명의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총궐기' 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 서정원 어진을 추모하고 전쟁기념관에 참배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종묘공원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이들은 미군기지 진입 시도하기도

12시경 학생회관 앞

내달 3일 다시 총궐기 계획

양배움터 각각 80여명 참여

연설,△정치방言을 가졌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지난 9월 30일(금) 19(일) 양일간

서울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중생

살인사건 종결기념사업회 청소년 대행부

체험행사로 참가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의 암도적인 현상을 보였다.

임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3주체 모이는 화합의 자리 될 것"

오는 9일(수)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안방민 총장이 제안했던 '해원의 대축제'가 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자리가 '외대를 위하여' 한 이벤트로 오는 9월(한국) 5월(동양·베트남) 9월(유럽) '총장·선출총회' 결과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이 참석한 해원의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일정을 제정했습니다.

같은날 같은장에서 유행언론에서는 유행언론이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미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계풍을 즐기는 모습.

임창모 기자

서관트립니다

월요일자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외대역사가 내수시정으로 이번 8·5호는 수요일자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를 미지기 몇몇 점 독자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발행일자를 꼭 기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화보

## 대학 음악인들의

### 순수한 일정

### 음악의 새길

### 제 22회 FBS 외대·가요제

·일시 : 10월 10일(목) ·장소 : 서울배움터 노천극장

1. Cigarette Queen (연립) - Dong(ock)
2. 새물결 (외대) - 어린 나
3. 밤길기 (연립) - 전래 아는지
4. 막국 (외대) - 더 절개
5. 불티태거 (음악대) - 시간 속의 길
6. PAPAN (연립) - Good-Bye
7. 키티스 (서강대) - 내 인의 너
8. 코디 (한인대) - Again
9. Lite dog (국제대) - Music
10. Black Bears (단국대)
11. Miracle S.G. (연립) - 블루스

초대가수 : 블루멘션, lufitnfinite Flow

본선행입니다. 맡은 그대 바랍니다.

## R통신

거리를 은통 밟게 물들인 젊은 벽들의 인파 속에서 저는 새삼 깨우쳤습니다. 대·한민족을 위하여 젊은 몇 남성이 그동안 얼마나 대애로 목발망가는가를, 젊은 광장을 이룬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끌끌笞는가를. 마지막 중에는...

인니에는 한례에 계재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손석희의 R통신'이 책으로 역사에 놓였다. W·B·N·R·N 등 언론이 부여하는 소비자적 자기규정에 대해 현실에 뛰어들어(rush) 저항하고(resist) 혁명하는(revolution) 'R선파'를 외치는 20. 세대들은 젊은들에게 게 하고온 말이 편지를 험대로 써어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남북관계, 수구 언론과 연말대선, 언론·민정당·KBS 사건, 대학가 보수논쟁, 박정희의 재평가 등 대안민족 사회 전반의 현실 문제와 희망에 대해 다투고 있다.

▲이직(利職)단체, 글자 그대로 '책을 이용해 하는 단체'란 뜻이다. 그리고 그 작은 지금, 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던 부산에서 열린 저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들이 신문지상에 미루본 소식이, 복천에서 온 아리마와 윤관이 드디어 그들이 함께 저에게 헤시는 안간다. 더 모순인 점은 어떤 근거로 한류인이 북한을 이를 한하는 것인지 눈인이 계속되고 이를 관련해 유엔 안인비서관과 세계평화 상대원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자에 정세석장관은 상대원이 되어 외대의 입장에 대해 조국의 비극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이 지워지는 현.

순석총의 R통신 / 한계재민문화 / 850면

##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는 무릎이 깎인다. 추석 때도 내려오지 못한 아들을 만나려 학교까지 찾아왔건만, 보고온 아들은 그 날 저녁 서을 어딘가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동안 해 주고 싶었던 음식이나 경기도에 특별히 부탁해온 보약을 바라면다니 싸들고 있는데 하필 오늘, 아들은 차기찬 학생회장을 찾은 윤군의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 대운동장에서 열린 행사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예로부터 '외대를 위하여' 한 이벤트로 열린 해원의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9월(한국) 5월(동양·베트남) 9월(유럽) '총장·선출총회' 결과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모여 차기찬 학생회장을 찾은 윤군의 어머니는 그날 힘들어 찾았는데 그 힘을 미루어도 복은 역사나 작의기에 그들을 이용해 헤시는 안간다. 아들이 순수한 총장이자 친구였던 것이다.

▲지난 1일(화), 유행언론이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립·왕기리어 96)군이 서울 강남동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소식에 외대에서 추억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뉴스들이 신문지상에 놓였다. 그들은 윤군의 어머니를 찾은 윤군의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 대운동장에서 열린 행사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 대운동장에서 열린 행사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 대운동장에서 열린 행사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번자에 정세석장관은 상대원이 되어 외대의 입장에 대해 조국의 비극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이 지워지는 현. 외대학보 513





# 등록금 투쟁 성과속, 세세한 공약 안지켜져

총학생회장, “올해 안에 기숙사건설에 대한 구체적 건립계획 나올 것”이라 밝혀

36대 총학생회 공약 중 가장 큰 성과물은 등록금부쟁과 정문·중앙도서관의 24시간 개방이다. 지난 저물방학부터 진행된 등록금교섭과 정문에서 탄생한 등록금책임위원회는 학교측 대표가 사퇴하였고, 교과문영을 겪었으나 그나마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분의 일부가 환불된 것은 큰 성과다. 학생들도 올해 학생회의 등록금 부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종혁(동양·일본어 97)군은 “‘여행’이 예산 인을 따져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일부를 들며 받게 된 것은 학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나타냈다. 또한 이아우(국제·상경·경제 97)군은 “무엇보다 총학생회는 대학민족의 정책활동을 견제하고 학생의견을 관찰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등록금 교섭에서 학생의견이 반영되는 전례가 만들어 질 것이다”며 총학생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울배움터 ‘기숙사건설 공약’과 관련해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노어 99)은 “총장의 의지가 확고한 올해 안에 구체적 건립계획이나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강남 제2도서관 설치에 관해는 “기숙사건설을 끝마친 후에 기숙사 건립 계획이나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 사무국장 황인표(사회·정치 외교 97)군은 “충분한 시장조사가 부족했던 제2도서관 건립은 예전에 무리였다”라고 밝혔다. 김재연은 “제2도서관의 위치로 고려된 강남 법안방학을 사용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아 현재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미리서 현재 제2도서관 건립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교원학생 제도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와 같은 공약이 아직까지 제대로 자지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에서 총학생회측은 ‘공약이행평가’라는 자료를 통해 ‘교원학생 제도 확대, 취업박람회개최’ 공약이 자지하지 않은 것은 학교당국에 문의한 결과 현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고, ‘제2도서관’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의의 관찰 하겠다던 공약은 이미 학교당국에 기숙사 건립 추진, 강남 제2도서관 설치 추진, 교원학생제도 확대, 학생들이 요구하는 계절학기 강의신청, 학교시설 관련 민원처리는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로 도서관·교문·24시간 개방·사물함·화장실·시각화 장애인·전산실·보완 및 암그레이드 등이 있었다. 그 중 교원학생회

과 이루어지지 못했다.

## ■총장선거와 대학평의원회

이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공약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역할위한 위상 조정’이다.

총장 선거에 관련해 김재연은 “정기총회에서 자제적으로 치른 총장선거에서 기초 많은 표를 얻은 재단개혁과 재단 사무회를 맡을 의지가 있는 후보가 종종으로 결정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위상문제’는 10월 안에 대학

도 확대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야 할 외국인 기숙사나 교환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전제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담금 회대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황인표군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계절학기 강의 신청에 대해 “제2학기 학교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다만 홍보부록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한다는”라고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는 제도개혁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도서관 교문 24시간 개방은 지난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물함은 1회기 초 도서관에 180개가 확장됐고 1월 초 인문과학관에 200개가, 시화과학관에 100개가 증설되었고 총학생회측은 2학기 내로 도서관에 추가로 사물함을 증설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교육개선 관련 공약

취업관련 공약에는 취업박람회 유치와 등문 기업설명회 개회가 있었으나 두 가지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총학생회 측은 취업박람회의 경우, 한 학교에서 많은 기업이 찾았어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도 드물거나 요즘은 개별기업이 학교에 의해서 채용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9년 개회했던 등문 기업설명회의 경

우 대기업의 참여도 저조했고 학생들의 참여율도 낮아서 효율성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업박람회와 등문기업설명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국장 황인표군은 “취업관련 공약을 더미다 보니 우회교과가 취업정보센터에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남은 일기 내에 취업정보센터의 예산과 지원을 늘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 기타

·인문과학관 1층의 현금인출기 이용시간 연장

구현재 오후 10까지 연장됐다.

·노천극장 지하 동아리방을 위한 화장실 설

치 ▶시화과학관 1층을 24시간 개방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세계영화와 상설기구화

△연기장 전체방문대표자회의에서 부설됐다.

·광교와 대외의 자주교류 및 공동행사 추진

△연기장 전석 티켓이 1만원 12월 원정을 방

문하여 학술교류·의향사(교수·학생·관

교류 및 세미나·공동개최가 포함됨)를

진행된다. 그 후 국제 관계 학회로 교류가 확장될 신뢰다.

·한번 방문 및 교류는 국내 외적 어려움으로 원된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만나보기 - 서울배움터 36대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노어 99)을 만나

## “학내 논의 기구 정립위해 노력할 터”



선거를 치러 재단개혁과 재단 사무회를 맡을 의지가 있는 후보가 당선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선거당시의 지금 총장의 행정을 비교하면?

총장선거 당시의 인기암합 정책보다 이후 실질적, 제도적으로 어떤 활동 벌이느냐가 중요하다.

안 총장은 선거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위문제를 위해 재단개혁위원회 등으로 의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선거당시에는 현 총장 이외에 모든 후보는 이승경, 김씨총회장 등 재단 사무회 세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

가장 잘 지켜진 것을 꼽는다면?

서울배움터에서 등록금을 끌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돌려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대학이 해마다는 것은 큰 성과였다.

다만, 언데래 투쟁했던 용인배움터 총학생

회가 등록금부쟁 마무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학생들에게 성과를 알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인방된 총장은 등록금책임위원회의 폐지를 말하고 있다. 총학생회도 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는 있는가?

기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기구에서 민주적 논의가 이뤄지고 학생이 개진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중 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남 제2도서관과 기숙사 건립문제다.

기숙사 문제는 총장선거 전·후로 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 문제는 총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다.

부지매입이든 리모델링 계획이든 올해안

으로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이다. 제2도서관의 위치로 고려된 강남 밤입밀딩을 사용하기 원하는 학내 구성원이 많아 현재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현재 제2도서관 건립은 무진막이다.

총학생회에서 공약이행정도에 대해 서술한 문건을 보면 ‘발표됐더니…하더라. 그래서 불기울하다’라는 해명이 많이 나온다. 이는 사전조사 부족으로 무리하게 공약을 정한 것 아닌가?

사실 사전조사가 부족에 공약이 걸리지 않음은 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학생회가 아니라면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해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있는가?

임기가 실질적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해

걸려있을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실질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원위원회와 등문관과 협업의기구의 상장을 청탁해야 한다.

위 두기구는 이번 총학생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올해인에 기숙사건설계획의 구체적 방법이 공표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학생회 최대 이슈·김재연 총학회장 한총련의장 출마 합의공정 거치지 않아 학내 ‘시끌’

36대 총학생회의 최대 이슈는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노어 99)이 한국대학총동학생회연합(한총련) 10기 의장에 출마한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혁신과 대중화 확보를 공으로 내걸고 ‘한총련총련’을 기치로해 지난 1월 28일(목) 한총련 대의원 380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했다.

총학생회장은 서울배움터 학생은 커녕 부총

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들과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단독으로 출마를 결정했다고, 이것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적 절차를 순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대지도 강의실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출마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과정에 대해 시�판했으나 학생들은 총학생회 계시판에 ‘총학생회장 불신임’ 까지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후 얼린 비상대책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총학생회장의 의장 출마를 인정하

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4월 13일(토) 열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회의에서 유권자 588명 256표를 얻어 세대원 김현우 전남 대의원 총회장이 됐다. 한총련 대의원 300명이 모여나

선행했다. 당시 총학생회장 김재연이에서도 한

총련의장 출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이 지

배적인 가운데 ‘간부직위를 시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간도도 있어 총학생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의장 선거가 끝난 이후

에도 학생들의 사회권리를 받는 등 이 사안으로 서울배움터는 한참 시끄러웠다.

한편, 김재연 총학생회장은 “난 저물방학때

출마했던 등총련의장이나 4월에 출마했던 한총

련의장이나 학생들에게 출마이유를 밝히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과오’였다”라

고 밝혔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민영기업, 포스코!

세계기업, 포스코!

오늘의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간접기업입니다.

투명경영, 디지털경영, 스피드경영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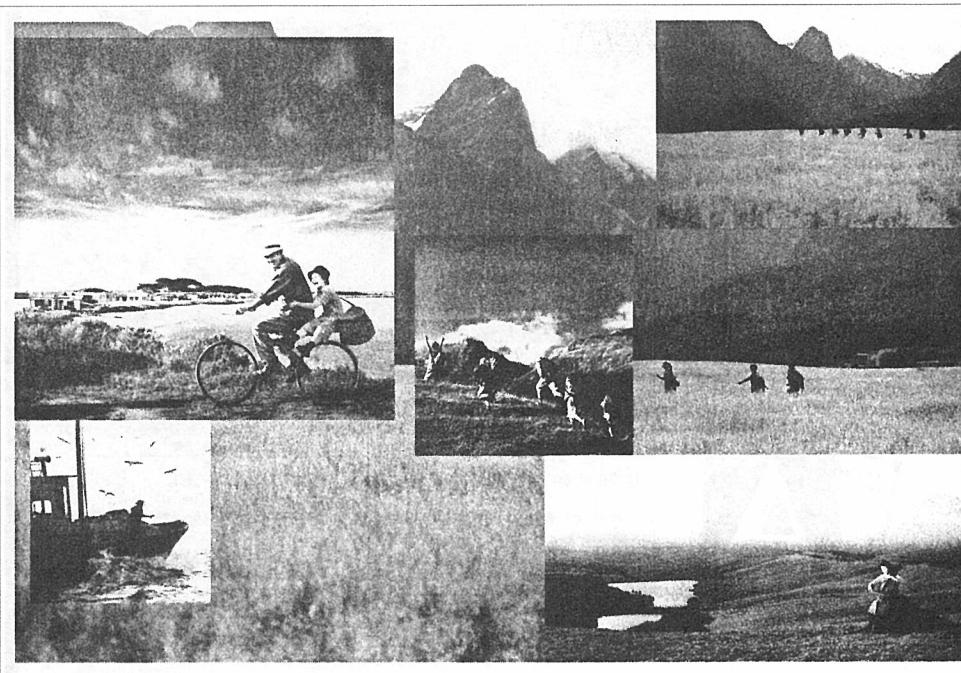
끊임없이 변화하고 앞서 달려온 민영 포스코 2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언제나 세계 앞에

당당히 살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

세계철강 1강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posco**  
소리같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 양배울터 총학생회 공약을 중간점검한다

# 9월 핵심공약 소홀, 복지공약만 이뤄져

재단선임책기구, 총장 선출 소극적으로 대응해

“지속적, 일관적인 모습으로 2학기에서 논의됐던 고민을 2학기 때 구체화시키겠다” 용인배움터 23대 총학생회 후보로 경쟁토론회에 참여했을 때 한 말이다. 공약집에서도 22대 총학과 협의체가 합의한 2011년 학사구조 합의서를 점검하고 이후과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다.

이 32명의 학부인은 대본부 하나비자시장으로 지난 일기동안 많은 부문에 이어졌다. 하지 만 인민주적 재단선임을 위한 대책기구 건설 △대학평생위원회의 강화 △언어학습의 지역화 도입 △스터디룸제공의 종합대학화된 디립西瓜, 교우행정의 분리 독립 등 총학생회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의 공약이 전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단대별 일기동안 대표자 학회가 자연대와 동우회에 두 개 단대에 그리고 소수인 ·동아리 및 학회 강회를 위한 부문 연합도 품질에 하나에 그치는 등 조급한 신경썼다면 이행될 수 있는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 생활장 캠프진행 △성적기적인 학생들과의 대화 개최 △분리수거 운동 △신보증인 강연과 대회 등 아직 기대가는 공약들은 짧지만은 않은 입 기동인 이행에 학생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 할 것이다.

### 재단선임금 확충

토지와 임야를 고수익용 재산이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재단 전입금을 풍족할 것을 등록금제 정원위원회를 통해서 문서로 요구했으나 달변이 없는 등 관선이 사제세상의 어려움이 있다.

### 2001학년도 등록금 2%를 각 학과에 지원하여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은 총회에 있다.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랐다. 불우이웃돕기를 한 과도 있고 비품을 구입한 과도 있으며 개개인에게 환불에 준 과도 있다.

###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

겨울방학 중에 여러차례의 학회를 거쳐 건설 되었고 문을 열었으나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고지로 인해 학회에 운영되지 않았다. 인병 등 흥정은 등록금책정은 총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없애고 등록금 조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논의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논의 대학평의원회의는 단순히 의견수렴기구로 머물렀으며 의결기구화 되지 않았다.

### 교통문제 해결

분당남선의 스플러스 재부임, 사당노선의 배차량 증설, 스플러스 운영 등을 되지 않았으나 교통모니터제는 1학기 동안 진행돼 요구안이 일부분 반영됐고 학내를 운행하는 소형 스플러스도 10월말부터 35인승 2대로 증차될 것이다.

### 식당직급임금 통한 식당문제 해결

2001학년도 2학기까지 적립하기 시작했으며 2년 앞당겨진 2003년 1학기(8월)까지 5학년이 모두 미련될 것이다. 적립금이 모아지면 어떤 방식으로 이론은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 중앙도서관, 제2기숙사

학회동·리연습동 건설 중앙도서관은 제2기숙사로 인해 미뤄진 상 태이고 제2기숙사에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며 학회동·리연습동은 도면이 완성됐고 시청의 하기만 남아있다.

### IMF 특별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3회에 걸친 분할납부

2000학년도 1학기에는 70명의 학생이 6,200만 등록금이다. 잘못된 인상을 끌어받는 등 학생과 함께 투쟁의 성과가 있었는데, 제대로 미루리하지 못하고 2학기로 넘어와 아쉽다.

### 공약 중 가장 큰 성과?

2000여명의 학생들의 할례이 닉터우팅 등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진행된다. 총장선출과 관련해 토론은 활발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 2004 총학생회 22대 총학생회(총회)와 다른 점은?

작년 총학생회는 출마이 사업의 힘을 제시하면서 단대와 계파에 끼어오는 방식이었다. 23 대 총학생회는 단대가 자립자활력을 가지고 웅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를 들어 서유럽 대의 미술·요술이 투정, 물리이연합회의 등록금 1인 할례이 시위, 자연대의 대선 관련 유권자 운동본부를 들 수 있다. 작년에는 총학생회 중심으로, 내년에는 과 학생회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일기동안 가장 역점을 둔 시안은?

원의 특별장학금을 받았으며, 2000학년도 2학기는 10명이 9,200만원을, 2001학년도 1학기 130명이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2001학년도 1학기에는 1학기 동안 진행돼 요구안이 일부분 반영됐고 학내를 운행하는 소형 스플러스도 10월말부터 35인승 2대로 증차될 것이다.

2002학년도 2학기 14명을 충원했으며, 2003학년도 1학기 모집률은 서울 12명, 용인 24명으로 배출예정이다. 모집공고를 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을 인감교수로 적립 운영할 예정이다.

### 전임교수 확충과 인정적인 제도화, 신임교원의 채용

2001학년도 2학기 14명을 충원했으며, 2003학년도 1학기 모집률은 서울 12명, 용인 24명으로 배출예정이다. 모집공고를 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을 인감교수로 적립 운영할 예정이다.

### 기증장학금 확충

2001학년도 2학기에는 40명에게 4363만 6000 원이, 2002학년도 1학기에는 58명에게 7155만 2000원이 지급돼 18명에게 2791만 6000원의 해

액이 더 들어갔다. 하지만 1인당 지급액수(등록금의 반액)의 확대, 지금 횟수 제한을 없애자는 못 했다.

수강신청 및 변경절차, 성적변경절차 등 학사운영 개선 수강신청을 하기 말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 교우회에서 흡 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04년 수강신청 학사점 역시 여전히 10학점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 교무위원회와 학생대표간의 긴급회(교학 회의) 한 학기 2회 개최 정례화

교학회에서 단대 학생과 총학생회 중심운영 위원회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열리지 않았으며 총장 또는 부총장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단답으로 대체했다.

이번에 디자인된 병원 의사의 외진 APC실 프린터가 설치된 명수당 사내 이정 디고급강의실 확대 디자인실 보수 소회 회적 제한제도 재검토 △학과와 지원비 내역 공개 등이 진행됐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인터뷰 - 용인배움터 23대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학·미아이 98)양을 만나

## “등록금 투쟁, 가장 큰 성과”



### 장기원 학생회장

2000여명의 학생들의 할례이 닉터우팅 등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진행된다. 총장선출과 관련해 토론은 활발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 2004 총학생회 22대 총학생회(총회)와 다른 점은?

작년 총학생회는 출마이 사업의 힘을 제시하면서 단대와 계파에 끼어오는 방식이었다. 23 대 총학생회는 단대가 자립자활력을 가지고 웅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이를 들어 서유럽 대의 미술·요술이 투정, 물리이연합회의 등록금 1인 할례이 시위, 자연대의 대선 관련 유권자 운동본부를 들 수 있다. 작년에는 총학생회 중심으로, 내년에는 과 학생회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일기동안 가장 역점을 둔 시안은?

등록금이다. 잘못된 인상을 끌어받는 등 학생과 함께 투쟁의 성과가 있었는데, 제대로 미루리하지 못하고 2학기로 넘어와 아쉽다.

최지정책단이란 무엇인가?

학자정책단이란 학생들의 의식조사, 학교교육과의 협상, 요구안 접침, 취업 등의 역할을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3명, 학생회 간부 2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남은 일기동안의 계획은?

대선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유권자 이어만 참여가 적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선을 학생회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이다.

### 다음학기 총학생회에게 한마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과학생회의 시작으로, ‘과’를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2004에서 남은 일기동안 그 토대를 마련해 믿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 ‘총학생회만’이 아닌

## ‘학생들과 함께’ 한 등록금투쟁

지난 학기 23대 총학생회의 주된 사업은 등록금 투쟁이었다. 겨울방학부터 등록금정책 조정소위원회, 대학평의회와 수없이 거쳐 민족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등투는 외부 부정이 많은 9월을 제외하고 한 학기 내내 진행됐다. 매년 9월이면 반복되는 투쟁이다. 춘전기라고도 불리는 등록금투쟁은 예년보다는 많이 더 넓어졌다. 행정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등록금 투쟁을 할 수 있게 했다.

비단도 있었다. 등록금 15억 200만원의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운동을 진행한 점이다. 대학평의회 대표인 세 학생회와 연대를 해서 등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로 일컬어졌다. 이문·왕산·대학원 총학생회 명의로 성명서를 등록하고 등록금 투쟁에 참여하는 있었다.

두 번째로, 등록금 투쟁은 학생들에게 많이 다가간 총학생회를 볼 수 있었지만 아직도 다가가기 어렵거나 있는 것 같다. 좀 더 가까이 늘 함께하는 ‘우리’ 총학생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총학생회라는 시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 2002학년도 제 2학기 수강신청 취소(삭제)

####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 아래 -

#####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2002. 10. 7(월) ~ 10. 11(금) ~ 5일간

##### 2. 수강신청 취소 시간

매일 09:00 ~ 20:00

##### 3. 수강신청 취소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인수인 강신청 취소  
(단, 제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수강신청 취소를 하여야 함.)

##### 4. 제한

취소하여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4학년 제외)

2002. 9

### 교육실험 신청서 제출

#### 1. 제출대상

· 2002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시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생자

#### 2. 제출기간

· 2002. 9. 30(월) ~ 10. 9(수)

#### 3. 제출장소

· 서울캠퍼스 - 시범대학 교학과

· 용인캠퍼스 - 교务연구처

#### 4. 제출서류

· 교육실험 신청원

#### 5. 실습기간

· 2003. 3. 31(월) ~ 2003. 4. 26(토) 4주간

\* 교육실험은 매년 4학년 1학기 1회 실시함.

\* 교육 실험 : 교육실험 신청 학생은 교육실험 험조 오픈 공문(2002. 10. 1일 배부 예정)을 시범대학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처에서 수령하여, 본인의 모교 또는 가주지 인원 학교의 승낙을 받아 교육실험 험조서를 2002년 12월 까지 시범대학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함.

\* 타교생으로서 서울리 10월 초부터 교육실험에 학교로부터 승낙을 먼저 받는 것 이 유리함.

2002. 9. 24

### 교육실험 승낙서 제출

#### 1. 제출대상

· 2002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시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 2. 제출서류

· 교육실험 승낙서 1부

#### 3. 제출기간

· 2002. 12. 27(금) 까지

####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송(팩스)도 가능

#### 5. 제출장소

· 시범대학 교학과 FAX 965-7047

130-791 서울시 동작구 이문동 270 시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처 FAX 031-333-1687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환산리 산 89 교무처

#### 6. 실습기간

· 2003. 3. 31(월) ~ 4. 26(토) 4주간

\* 교육실험 신청 학생은 교육실험 험조 오픈 공문(2002. 10. 1일 배부 예정)을 시범대학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처에서 수령하여 본인의 모교 또는 가주지 인원 학교의 승낙을 받아 교육실험 험조서를 2002년 12월 까지 시범대학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함.

\* 타교생으로서 서울리 10월 초부터 교육실험에 학교로부터 승낙을 먼저 받는 것 이 유리함.

2002. 9. 24

### 2002학년도 제 2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 아래 -

##### 1. 신청기간

2002. 10. 7(월) ~ 10. 11(금)

##### 2. 신청장소

·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

##### 3. 신청자격

· 가. 2002학년도 전기 종업예정자로서 제1전공을 8학기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  
나. 7학기(조기졸업 6학기)까지 제1전공에서 취득한 총 성적평점평균이 C(2.50) 이상인 자  
다. 복수전공 이수과목에 해당하는 1학 영역의 부전공을 선택하여  
18학점 이상의 과목을 지정  
라. 제1전공 종업예정자까지 1개 영역의 부전공 2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  
마. 제1전공 종업예정자까지 2개 영역의 부전공 2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4. 제출서류

· 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과 비자)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 5. 복수전공 이수 허가 발행 - 2002년 5월 중 해당 단과대학 복수전공

##### 6. 기타(복수전공 취소기간은 3/4년 이전 소정기준내에 공고할 예정)

2002. 10

### 교무 연구처 장

### 교무 연구처 장

### 사범대학장





# 세민전의 모든 것이 여기에...

2002, 제6회 '세계 민속학술문화축전' 민속공연 가이드

6회 세계 민속학술문화축전의 주제는 '전통·세계평화'로 전통 세계문화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와 그에 따른 반전운동을 막고 있다. 이정도 시기 세민전의 민족 공연에서도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제 공연과 그에 관련 국가의 민속상연과 노래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의 이해를 담고 있다. 이 지역에 서도 공연순서와 같은 공연내내로 세민전을 관람할 학생들의 이해와 편의를 고려하였다.

## 에는 미당

각기 고유한 양력을 지지하며 연희 되어온 국악 관현악과 사설들이 그리고 서양악기와의 합주를 통해 세계문화를 엠마우는 외인들의 미음을 남기고 있다. 용인배움터 한글악 심상풀과 그에 관련되는 스트리언의 민족상연과 노래를 해무리, 그리고 증불교가 '사물놀이'와 관련하여 위한 신도(작곡: 박범준)와 벽방울을 연주하여 동서양의 음악적 화합을 이루는 자리를 마련한다.

## 주제영상 첫번째

거의 대부분의 유럽국가를 전쟁의 공포속으로 내몰 세계 제 1·2차대전,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곤란도 1·2차대전의 참전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민족공연이 이어진다.

##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독일 민요 로렐리아(Lorelei) 음악에 맞춰 서정적인 춤과, 카데린 리본을 불인 옷을 입고 추는 Edderschweiler 등의 민족 무용과 '페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꿈을 불인 '플강'의 3곡의 노래가 불려진다. 뛰어난 이탈리아의 유명

유로 팝가수 Laura Pausini의 'Siamo noi' 우리는 하나라는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노래되며, Domani라는 알 수 없는 내면의 일상과 오늘의 자신의 세계에 진실이라는 가사의 맵으로 불러진 곡으로 기존의 간조네의 이미지를 깨는 곡 등으로 소개된다. 서반어파의 공연에서는 스트리언의 민족상연을 대표하는 열정과 화려한 상징 퍼포먼스와 이전행렬이나 대표하는 춤 '탱고'가 선보인다.

## 일본·포루투갈

아시아에 전쟁의 공포를 알려준 태평양전쟁이 중간영상을 통해 보여진 뒤 일본의 '신도식 결혼식'과 비슷하다. 신도결혼식에는 신랑, 신부, 나고도 부부, 가족, 친구들이 참석하며, 거느리가 신을 향해 서야하는 등 일본의 독특한 결혼식이 재현된다. 포루투갈어파의 공연에서는 커피와 시탕수수 농장의 유자리를 위해 이프리카로부터 강제 이주된 족족노예들이 음악이 브라질 문화에 스며들어 생겨난 춤과 음악이 혼연인 장르 'Samba'(삼바)가 공연된다.

## 주제영상 두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시대인 냉전시대, 양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이 영상의 주인공이다. 한없이 계속 될 것만 같던 냉전시대로 쓰러지는 레닌의 등장과 함께 종신하고 말았다. 결국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이 동유럽붕괴의 원인이 되었고 또 다른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 러시아·폴란드·체코·루마니아

러시아어파의 '가로수가'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장을 대하는 미국과 소련의 영상으로, 러시아의 파워가 느껴지는 풍자, 군인의 절도가 물씬나는 채찍, 역동적인 리듬과 세트로 이루어진 춤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란드어파는 폴란드의 5대 무곡 중 하나인 '마주주(Mazur)'란 춤곡을 준비했다.

두 커플이 서로 팔을 잡았고 전체적으로 팔을 고르는 이 춤은 중부 폴란드의 풍자 춤으로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초반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궁전에서 처음은 인기를 얻었다.

체코어파는 남녀 한쌍의 결혼식을 친구들이

들리리로써 함께 춤추해 주는 내용을 '풀카'(Polka)라는 춤으로 표현하며 루마니아파는 'Hon'(호너)라는 무

마니아를 대표하는 춤을 선보인다.

이 춤은 남녀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추는 춤으로 주로 결혼식 날에 마을입구의 마당에 꼬리 마을 주민이

어우러져 춤춘다.

## 중국·유고·헝가리

중간 영상으로 중국의 전인문 사례와, 나토의 유고공습 내용의 영상이 끝난 후 중국어파와 대극전 시범이 이어진다. 대극전 시범은 헝가리의 국기인 '주화전(周華健)'의 친구들간의 깊은 우정을 노래한 '봄우(曉風)'를 부른다. 유고어파는 사람들이 원인이 되어 최우수 발상으로 기록되며 몸을 뒤, 아래로 특유의 섬세한 변화를 주며 추는 춤이다.

헝가리파에서 준비한 공연은 'Nép Tánc'(남 편초)란 춤으로 우주별로 두 사람이 추는 춤 이란 의미이다. 이 춤은 남녀가 짹을 지어 추는 춤으로 빠른 음악에 맞춰 빠른 발걸음이 특징이다.

## 주제영상 세 번째

미국의 대극전의 영향으로 일어난 '넷드남전쟁'과 '인도 캐스팅'의 분쟁 등 동아시아의 피해를 다른 영상이 상영된다.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인도·태국

미얀마어파는 많은 사냥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사냥을 나가기 전에 주는 사트리아(Satria)라는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와 역시

인도네시아의 축제 때 추는 아谤(Yapong)을 선보인다. 인도네시아(나그나나)는 힌두의 인도 노란 소녀들이 이 춤을 기원하며 춤을 춤는다. 태국어파는 '아유리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춤으로 4성의 남녀가 짹을 지어 대나무 밖자리에 맞추어 추는 대나무 춤을 춤춘다.

## 아랍·이프리카·미국

9·11테러와 부시의 악의 축, 밤, 걸프전과 이라크공습으로 기억에 하려는 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에 뒤이어 아랍문화의 대표적 춤이며 종교판례를 기원하는 춤인 베리엔트를 아랍어파가 춤춘다. 이프리카어파는 서로의 일부를 묻는 'Jambon(안경)' 등 2곡을 노래한다. 영이라는 I hope I get it이라는 뮤지컬 코스스 리인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You needed me' 등 두곡의 노래를 부른다.

## 주제영상 네 번째

평화를 주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곳곳에서 벽을 헌한 목소리를 외치는 국가의 영상과 함께 중간 영상으로 서해안전, 경강자시전 등 한국 내 인권문제를 다룬 영상이 상영된다.

## 한국·푸른학교·페�션언

미지역국가로 공연하는 미국팀은 우리민족의 풀이판인 친진판을 형상화한다. 신령과 대동의 놀이판을 통해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고 공생을 염원하는 민족임을 주제로 공연한다. 공연은 모두 '나는 나'('쥐불놀이'), '나는 미당'(밀당), '꽃는 미당'(대동궁굿) 세미디션으로 구성되었다.

미지박 공연을 맡은 '푸른학교'는 IMF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실직한 가정을 상대로 향년, 노동, 학생, 여성,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실기자기장사를 교육지도하고 무료 급식을 하는 교육기금으로 그곳의 아이들이 빈민들에 학생 등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세민전의 폐막을 선언한다.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 외대 역사와 함께한 세민전

## 32년간의 세민전의 발자취

### 세민전의 시초 세계민속예술제

1970년 '동남아 문화의 밤'으로 처음 시작되었던 행사가 행사를 넓혀 71년 세계민속예술제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개교 17주년 기념행사로 차리기도 했던 세계민속예술제는 당시 인천전공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외대의 대표적 행사를 계획, 진행되었다.

세계민속예술제가 외대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잡아 가면서 1976년 유신한법번개대운동과 학원민주화운동으로 내려온 정부의 33일 후교령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78년 세계민족예술제로 대체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세계민족예술제는 외대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고, 심포지엄은 인문대와 경상대의 노력으로 세계민족예술제는 제회 행사로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1996년 '세계민족문화축전'으로 다시 시작 1996년 세민전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된다. 외대의 비 어문계열의 학술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을 세계민족문화축전으로 개명해 행사가 진행된다.

1997년 동일한 비의 비전'이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세민전은 영화제가 새로 신설되고, 전시, 공연, 심포지엄 등 가지 방식으로 개최된다. 특히 대회로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외대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고, 심포지엄은 인문대와 경상대의 노력으로 세계민족예술제의 참여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밝거름이 되었다.

### '도전과 화해의 청년미당' 제4회 세민전

'도전과 화해의 청년미당'이라 주제로 열린 4회 세민전은 2천명의 행사 준비인원과 2회에 걸쳐 진행된 민속공연에 춤·선악여행의 행사들이 물리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 70년 '동남아 문화의 밤'으로 시작

### 84년 참시 중단

### 92년 '세계민족 예술제'로 부활

98년 당시 세단비리로 실추되었던 외대의 이미지 상승에 도전한 행사를 하였다. 하지만 상공인들 많은 파트너 함께 노력해 행사를 드러냈으며 세민전 형식의 다양화와 세민전 세단비리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등 여러 문제점을 넘겼다.

### 외대의 신세계를 연 제5회 세민전

제5회 세민전의 주제는 '세 천년 그 화망의 중심'으로 세로이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세계의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세민전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회를 거듭할수록 보다 안정적인 행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세민전은 5회에서는 '세계민족문화축전'이라 이름으로 제5회 세민전은 학술적 행사도 성공적이었다.

학술행사와 기획전, 토크와 발표회로 이루어진 학술제는 비 어문계열의 참여로 세민전 평가나 지적되던 세계민족예술제의 참여를 이끌어낸 세민전이다. 하지만 여전히 충실히 공연과 98년 말 공식 기구화는 되었지만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세민전 개선이 요구되었다.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 공연장 가는 길

9월 12일(토)  
늦은 6시, 6시(2회 공연)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성남방면  
서초구민관앞 무료 서울버스 운행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 전태일을

## 아십니까?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소외받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가 학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삶도 생활여건이 험난한 시대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시대'를 헤매며 눈총 들리고

그들의 삶을 신진으로 존중받는 삶으로 만들고자

갈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한 사람

그래서 끌어온 자신의 목숨마저 불살랐던 사람

### 이 속에서

우리는 인간사랑의 실천만이

전쟁과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을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식방과 고난했던 우리 민족 통해 대간한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시가 없는 괴롭는 사회에,

우리 홀망의 세상을 찾습니다.

○ 일시 : 10월 13일(금) 19:00

○ 장소 : 한양대

○ Concert 티켓예매 - 티켓파크 : [www.ticketpark.com](http://www.ticketpark.com)  
- 티켓링크 :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 예매 : [www.yeltz.com](http://www.yeltz.com)

○ 문의 : 전태일기념사업회(02-3672-4138)

[www.juntaeil.com](http://www.juntaeil.com)

